

그림형제 동화 ‘황금 새’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박 상 학**

국문초록

그림형제가 수집한 민담 <황금 새>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민담의 제시부에 나타난 문제점은 왕과 아들 세 명의 치우친 남성적 구조 속에서 이 왕국은 여성성이 결핍되어 있다. 황금 사과의 상실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더욱 더 여성적 요소를 보충할 필요성을 느낀다. 가장 어리고 바보스러운 막내의 모험과 여행은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새로운 자아의 개성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아는 여행의 경과 중에 단계마다 새로운 왕국이라는 특정 집단 의식의 지배에 사로잡히고 죽음의 위기에서 어려운 과제를 수행한 후에 해방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이 과정은 성인화 과정으로 자아의 높아진 의식성의 회복 뒤에 여성성의 보충이라 하는 공주와의 결혼 즉 대극의 합일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여성성의 보충으로 보이는 새, 말, 공주는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을 만난 자아가 아직은 온전한 성공에 이른 것은 아니다.

집단 지배의식의 지시에 따라 출발하는 두 형들의 실패 뒤에 주관적 의식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새로운 자아(막내)가 나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페르소나의 구분과 버림은 쉽지 않은 난관이다. 반복된 고난에 이어 형들을 사형에 처한 다음에 즉 지적인 능력이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상위의 의식성을 획득하고 그의 아니마인 공주와 일차적 결혼을 한다.

접수일 : 2016년 10월 28일 / 심사완료 : 2016년 11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12월 16일

*이 논문은 2013년 조선대학교병원 선택 진료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융 학파 분석가,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대개의 이야기는 결혼으로 끝나지만 여기서는 다음 단계가 남아있다. 여우가 자신을 죽여 머리와 발을 잘라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주인공이 마지못해 행하자 여우는 마법이 풀려 왕자가 된다. 여우가 공주의 오빠로 변신한 것은 동물이 인간화한 것으로 또 다른 의식화를 경험한다. 비로소 대극의 합일이 이루어지고, 신성한 결합이 전체성을 획득하고 즉 개성화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중심 단어 : 그림형제 · 황금 새 · 개성화 · 분석심리학 · 여우.

들어가는 말

뚜렷한 시대적 배경이나 무대가 없는 평범한 인물의 흥미로운 체험 등이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민담이라고 한다. 세대를 이어서 공감을 주는 내용이 전해지는 것으로 집단적 무의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심층심리학을 공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민담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꿈의 해석처럼 그 자체가 심리학적 체험이다. 체험한다는 데는 언제나 감정과 본능적 충동이 참여한다.¹⁾ 민담의 해석은 개인적 연상이나 논평이 없는 꿈처럼 보아야 한다. 민담에서 나오는 상들이 어떤 심적인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상에 대한 인류의 오랜 연상들을 수집하여 비교하고 공통된 뜻을 발견하는 확충(amplification)의 방법을 사용한다. 동시에 해석하는 이의 무의식에 그에 비길만한 원형의 배열과 그 활성화를 촉진하는 일이 일어나서 이 또한 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형제가 수집한 민담 중 ‘황금 새’를 대상으로 주어진 민담을 해석하는데 마음속에 무의식의 반응이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 번 이 민담을 읽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으로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되새겨 봤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 속의 셋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가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본다. 이를 자아의 개성화 과정에 비유하여 개개의 등장인물이나 동물 또는 신화적 상에 대한 확충 그리고 상과 상 사이의 관계나 행위와 사건의 진전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1) 이부영(1997) : “분석심리학과 민담”, 《민담학 개론》, 일조각, 서울, pp116-117.

민담 ‘황금 새’의 줄거리²⁾

아주 먼 옛날 성 뒤편에 아름다운 기쁨의 정원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에는 황금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왕은 그 사과가 다 익으면 하나하나 개수를 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어보니 사과 하나가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제부터 매일 밤 사과나무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왕은 첫째 아들을 정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졸음을 이겨내지 못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사과 한 개가 또 없어 졌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불침번을 섰지만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시계가 12시를 땡 치자 곧 잠이 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사과 한 개가 또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막내아들이 지킬 차례였습니다. 막내아들은 마음속으로 단단히 준비를 했지만 왕은 형만 한 아우가 없을 것이라면서 탐탁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겨우 허락을 받아낸 막내는 나무아래 누워서 두 눈을 부릅뜨고 졸음과 싸웠습니다. 시계가 밤12시를 치자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빛 아래로 새가 날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의 깃털은 온통 황금으로 되어 있어서 나무 위에 내려앉은 그 새는 눈부시게 반짝거렸습니다. 새가 사과 한 개를 따자 어린왕자는 화살을 쏘았습니다. 새는 맞히지 못했지만 황금 깃털 하나가 화살에 꽂혀 땅에 떨어졌습니다. 깃털을 주운 왕자는 날이 밝자 그것을 왕 앞에 가져가서 어젯밤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이 깃털 하나가 이 나라 전체보다 값어치가 나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토록 귀중한 깃털이라면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 그 새를 통째로 가져야겠다.”

그 새를 찾기 위해 처음 출발한 것은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자기 머리를 믿고서 틀림없이 새를 찾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얼마 안가서 보니 숲 어귀에 여우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총을 겨누고 막 쏘려고 하니 까 여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2) Bruder Grimm, 김열규 역(2007) : 《그림형제 동화 전집(합본)》, 현대지성사, 경기도, pp331-338.

“쏘지 마세요! 총만 안 쏜다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황금 새를 찾으시나 본데 길은 제대로 잡으셨어요. 계속 가다보면 오늘 밤쯤 마을이 나타날 텐데 두 개의 여인숙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겁니다. 하나는 불이 환히 켜져 있고 왁자지껄하지요. 거긴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대신 좀 을씨년스럽긴 해도 맞은편 여인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런 머저리 같은 짐승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 왕자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총알은 빗나갔습니다. 여우는 꼬리를 쭉 빼고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왕자는 여행을 계속 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여우의 말대로 두 개의 여인숙이 마주 서 있는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인숙에서는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여인숙은 낡은데다가 웬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이런 좋은 곳을 두고 저런 형편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머저리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왕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밝은 여인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신나는 여인숙에서 왕처럼 세상모르게 지내면서 새와 아버지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만아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황금 새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둘째도 형처럼 여우를 만났고 여우의 충고를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두개의 여인숙 앞에 이르러 보니 왁자지껄한 함성이 터져 나오는 여인숙 창문으로 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이 부르자 군소리 없이 따라 들어가 흥청망청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막내아들은 자기의 운명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안절부절인 데 아버지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헛수고지, 형들이 못한 일을 제가 어떻게 한다고 사고라도 터지면 제 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할 텐데, 저 녀석은 좀 둔한 편이거든.”

왕은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자는 계속 우겨댔습니다. 마침내 왕은 가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여우가 나타나 총을 쏘려는 막내에게 한번만 살려 달라고 빌면서 도움말을 주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마음이 어질었습니다.

“걱정마라, 여우야, 너를 해치진 않을 테니.”

“저도 보답을 하겠습니다. 제 꼬리에 올라타세요. 그곳까지 데려다 드릴테니.”

왕자가 여우의 꼬리에 올라타자마자 여우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려는가 싶으면 어느새 쏜살같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꺾전을 때렸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왕자는 꼬리에서 내려 여우의 충고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초라한 여인숙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폭 잔 다음 아침 일찍 들판으로 나가니까 벌써 여우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이리로 쪽 나가면 성이 한 채 나올 겁니다. 성 앞에는 병사들이 한 떼 진을 치고 있지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쿨쿨 잠을 자고 있으니까요. 병사들을 지나쳐서 성안으로 들어가세요. 이 방 저 방, 보면 나무로 된 새장 안에 황금 새가 앉아 있는 방이 나타날 겁니다. 그 옆에는 장식만 요란한 황금으로 된 새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새장에서 그 새를 꺼내서 화려한 새장에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을 마친 여우는 다시 꼬리를 쪽 뺐었습니다. 왕자는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여우는 언덕을 올라 다시 쏜살같이 내달았습니다. 바람이 꺾전을 때렸습니다. 성 앞에 도착해보니 과연 여우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맨 끝 방으로 들어가니 나무 새장 안에 황금 새가 들어있고 그 옆에 황금 새장이 놓여있었습니다. 사과 세 개도 방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왕자는 이렇게 아름다운 새를 초라하고 볼품 없는 새장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장을 열고 황금 새를 꺼내서 황금 새장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새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고 그 바람에 병사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병사들은 방으로 몰려와서 왕자를 붙잡아 감옥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자는 재판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왕자는 그동안의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지만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왕은 바람보다도 빨리 달리는 황금 말을 가져오면 목숨을 살려주고 황금 새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무작정 길을 떠났지만 한심한 생각이 들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황금 말을 찾을 수 있을까?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여우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다 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운을 차리세요, 제가 황금 말을 손에 넣는 비결을 알려 드릴 테니까, 이리로 곧장 가면 성

한 채가 나오는데 그 성의 마구간에 황금 말이 있습니다. 마구간 앞에는 마부들이 누워 있는데 모두 잠들어 있으므로 마구간에서 황금 말을 꺼내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랍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나무와 가죽으로 된 초라한 안장을 말 위에 얹어야지 그 옆의 황금 안장을 얹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랬다가는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여우는 다시 꼬리를 쪽 찢고 왕자는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얼마 안 가서 여우의 말대로 성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왕자는 황금 말이 있는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안장을 얹으려니까 이 멋진 말에 초라한 안장을 얹기가 웬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금안장이 닿자마자 말은 히잉히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바람에 마부들이 눈을 떴고 왕자는 붙잡혀서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재판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황금으로 지은 성에서 아름다운 공주를 데려오면 목숨을 살려주고 황금말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착한 여우를 금세 만났습니다.

“당신이 불행하긴 말건 나는 이제 손을 떼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지만 불쌍한 당신을 돕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리로 쪽 가면 황금성이 나와요. 해가 떨어질 무렵이면 도착할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고 사방이 조용해지면 아름다운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온답니다. 공주가 나타나거든 가서 입맞춤을 하세요. 그럼 공주가 당신을 따라 올 겁니다. 하지만 공주가 부모님께 작별인사를 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돼요. 그랬다가는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여우는 꼬리를 쪽 찢고 왕자는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황금성에 닿고 보니 여우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왕자는 밤이 이슬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두들 깊이 잠들었을 때 아름다운 공주가 욕실로 갔습니다. 왕자는 따라가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공주는 왕자를 따라나서겠다고 말하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부모님께 작별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왕자도 거절했지만 공주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매달리자 마침내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공주가 부모님의 침상으로 가자마자 성안의 모든 식구들이 눈을 떴고 왕자는 다시 감옥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이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나의 창문 앞에 버티고 서있어 시야를 가로막는 저 산을 없앤다면

너를 살려주마. 여드레 안에 그 일을 해내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왕자는 부지런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레 동안 쉬지 않고 한 일이 다람쥐 눈곱만큼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만 낙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레째 되는 날 저녁 여우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가서 꼭 쉬도록 해요. 내가 대신 일을 해줄 테니.”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왕자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산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왕자는 펄 듯이 기뻐하면서 왕 앞에 달려가 무사히 일을 마쳤다고 보고했습니다. 왕은 좋든 싫든 약속대로 딸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못가서 다시 착한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더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하지만 황금성에서 온 공주에게는 황금 말이 어울립니다.”

“어떻게 황금 말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왕자가 물었습니다.

“먼저 당신을 황금 성으로 보낸 왕에게 이 아름다운 공주를 데려 가세요. 보나마나 당신을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선뜻 황금 말을 내놓을 테니까요. 그들이 황금 말을 끌고 오면 재빨리 올라타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작별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공주와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번쩍 들어 올려 말 등에 태운 다음 달아나는 겁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못할 겁니다. 바람보다 빠른 말이니깐요.”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가서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를 황금 말에 태우고 갈 수 있었습니다. 여우는 뒤쫓아 와서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황금 새를 갖도록 해 드리지요. 황금 새가 있는 성으로 가시되 아름다운 공주는 여기 그냥 두세요. 제가 잘 보살펴 드릴 테니까요. 황금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가세요. 황금 말을 보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황금 새를 가져올 겁니다. 새장을 받거든 손살같이 내뺄면서 공주를 데려가세요.”

이번에도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 왕자는 이제 값진 보물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무슨 부탁인데?”

왕자가 물렸습니다.

“숲에 닿는 대로 저를 쏘아 죽인 다음 머리와 발을 잘라 주세요.”

“무슨 끔찍한 소리를! 그런 부탁은 도저히 못 들어준다!”

“그렇다면 저는 그냥 가야겠군요.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만 더 하겠어요.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목매달려 죽을 목숨을 사지 말고 우물가에 앉지 마세요.”

여우는 그 말을 마치고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별 똥판지같은 녀석 다 보겠네!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목매달려 죽을 목숨을 사지 말라니요? 우물가에 앉자 말라는 소리는 또 뭘니까?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와 여행을 계속 했습니다. 어느덧 두 형이 머무르던 마을에 닿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와글와글 시끌시끌하며 온통 난리였습니다.

왕자가 그 이유를 묻자 두 사내의 목을 매단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 가서 보니 두 사내는 바로 왕자의 형들이었습니다.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써버리고 온갖 못된 짓을 도맡아 저지른 모양이었습니다. 왕자는 어떻게 용서 받을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저 놈들의 자유를 당신이 산다면 가능하지요. 하지만 저런 악당 놈들을 풀어주기 위해 왜 아까운 돈을 낭비하려는 거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왕자는 서슴없이 두 형의 목숨을 치렀습니다. 풀려난 형들은 왕자와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못가서 그들이 처음으로 여우를 만났던 숲에 다다랐습니다. 따가운 햇볕아래 땀을 뻘뻘 흘리던 두 형은 시원한 숲이 나타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에 가서 좀 쉬다 가자. 목도 적시고 배도 채우고 말이야.”

왕자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형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물가에 앉지 말라던 여우의 당부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못된 형들은 왕자를 우물에 밀어 넣고 공주와 황금 말과 황금 새를 데리고 아버지의 성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황금새 말고도 황금 말, 거기에다 황금성에서 공주도 데리고 왔습니다.”

두 아들이 말했습니다.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은 먹지를 앓았으며 새는 노래를 부르지 앓았습니다. 또한 공주는 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한편 우물에 빠진 왕자는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행히 우물이 말라있었던 데다가 보드라운 이끼위에 떨어져 몸이 상하지 앓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한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착한 여우가 또 나타나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우는 우물 속으로 뛰어나리더니 자기의 충고를 듣지 앓았다고 왕자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버리지는 앓겠어요. 곧 밝은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여우는 자기 꼬리를 단단히 붙잡으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더니 왕자를 꼭대기로 끌어 올렸습니다.

“아직 안심할 형편이 못돼요. 형들은 당신이 죽지 앓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감시원들에게 숲을 빙 에워싸고 있다가 당신이 나타나면 쏘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도중에 왕자는 가난한 사나이를 만나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앓고 무사히 왕의 궁전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말이 먹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공주가 울음을 퓓 그쳤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슬펐는데 지금은 무척 즐겁습니다. 저의 진짜 낭군이 돌아온 것 같아요.” 아름다운 공주가 말했습니다.

공주는 형들에게서 사실을 말했다가는 당장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지만 왕에게 그 동안 앓었던 일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왕은 성 안에 앓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왕자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공주는 당장에 왕자를 알아보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죄 많은 형들은 붙잡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막내는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했고 왕의 후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여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숲을 다시 찾은 왕자는 여우와 마주쳤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하던 것을 모두 얻었지만 저의 불행은 끝이 없군요. 저를 구해 줄 분은 당신뿐입니다.”

여우는 자기를 쏘아 죽인 뒤 머리와 발을 잘라 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왕자는 할 수 없이 여우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우는 다름 아닌 아름다운 공주의 오빠로 변했습니다. 마법의 주문에 걸려 있다가 마침내 풀려난 것입니다. 그들은 털끝만한 불행도 없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유 화

대상 민담과 유사한 이야기들을 예를 들면 먼저 프랑스의 민담에 ‘황금 사과’가 있다.³⁾ 아버지의 정원에서 매일 황금 사과가 없어지는데 이 이야기에서도 세 명의 아들이 등장 한다. 두 형들은 그것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막내인 셋째가 바위 뒤 깊은 구멍에서 사자가 나와서 사과를 훔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이를 찾으러 깊은 우물 같은 구멍으로 내려가는데 두 형들의 실패 후에 막내가 두레박을 타고 끝까지 내려가 다다른 곳이 바로 저승이다. 거기서 막내는 노파를 만나 그 할머니가 알려줌에 따라 자신보다 강한 사나운 사자에게 다칠 때마다 그녀가 준 요술 크림을 바르면서 세 개의 성, 즉 철의 성, 은의 성, 황금의 성에 갈수록 더욱 사나운 사자들을 차례로 물리친다. 각 성마다에 잡혀 있던 아가씨들을 구한다. 그 과정에 얻은 보물과 함께 아가씨들을 데리고 저승을 떠나 밧줄을 타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오려 한다. 그런데 세 명의 아가씨들을 먼저 올려 보내고 마지막에 자신이 올라갈 차례에 형들이 밧줄을 자르는 바람에 다시 저승에 떨어진다. 이전의 노파를 만나 음식을 먹으면 먹는 만큼 위로 올라가는 야수를 다루는 법을 배워서 두 차례의 실패 후 어렵게 세 번째 시도에 성공하여 아버지 집에 도착한다. 자신의 공로를 가로채서 아가씨들과 결혼하려던 형들의 죄를 폭로하고도 다른 이야기와 다르게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자신은 황금성의 아가씨와 결혼하고 형들은 각각 은의 성의 아가씨와 철의 성의 아가씨와 결혼한다. 여기서 막내는 복수심이 강한 성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끝맺는다.

또 다른 유회화로 유고의 민담인 ‘황금 사과와 공작 아홉 마리’가 있다.⁴⁾ 왕에게

3) 김택희(2003) : 《세계민담전집, 8. 프랑스 편》, 황금가지, 서울, pp119-129.

4) 오경근, 김지향(2003) : 《세계민담전집, 10. 폴란드, 유고 편》, 황금가지, 서울, pp226-243.

왕자 3명과 사과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 밤이면 사과가 익었는데 누군가가 이를 훔쳐간다. 왕이 이를 지키라고 한 지시에 따라 먼저 형들이 시도하지만 두 아들은 차례로 잠을 자느라 실패한다. 다음날 막내가 지키는 데 공작 아홉 마리가 날아온다. 8마리는 사과나무에 한 마리는 왕자의 침대로 내려와서 어여쁜 소녀로 변하여 사랑을 나눈 뒤 사과를 하나 가져가고 두 개를 왕자에게 준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다른 하나는 왕자에게 주는 것이다. 아침에 아버지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과 두 개를 다 드린다. 다음날도 반복되는 며칠간을 형들이 질투하여 노파를 동생의 침대 밑에 숨어 있게 했다가 소녀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바람에 놀라서 공작이 되어 날아가 버린다. 소녀를 찾아 떠나는 긴 여정에 호숫가의 커다란 왕궁에서 할머니 여왕과 딸을 만난다. 할머니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면서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호수에 목욕하러 온 공작을 만나지 못하게 주인공을 바람으로 잠을 재워버린다. 공작 소녀는 와서 입맞춤을 하지만 주인공은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3일간을 반복된다. 그때마다 하인에게 말을 전하나 둘은 만나는데 실패한다. 다시 길을 떠나 산속의 노인의 도움으로 그녀가 사는 궁전에 가서 소녀와 결혼한다. 이번에는 여왕이 산책길에 나서면서 열쇠를 주고 나가는 데 12번째 지하실의 열쇠를 열지 말라는 금기를 제시한다. 호기심에 그 금기는 깨어지고 인정에 얽매어 소리 나는 곳에 물을 3번 주자 고리가 풀린 뱀이 아내를 가로채 사라진다. 아내를 찾아 계속 여행하는 중에 물고기, 여우, 늑대를 차례로 도와주고 각각의 비늘과 털들을 얻어서 가는 중에 아내를 만나 도망가다가 결국 뱀에게 잡히고 아내의 알려춤에 따라 뱀에게 말을 구하는 법을 질문해서 뱀에게서 힌트를 얻는다. 노파의 12마리 말을 3일 밤낮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전에 도움을 줬던 물고기, 여우, 늑대의 도움으로 무사히 과제를 끝내고 험상궂은 듯 보이는 황금 말을 얻어서 도망가는 동안, 그 말의 동생 말인 뱀이 타고 오는 말이 황금 말의 부탁대로 뱀을 떨어뜨려 퇴치하고 아내와 함께 왕궁에서 잘 살았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종결된다.

세 번째 비슷한 이야기는 “이반왕자, 불새, 회색 늑대(알렉산드르 N.아파나세프)”를 예로 들 수 있다.⁵⁾

5) 크리스치안 슈트리히 엮음, 김재혁 옮김(2010) : ‘이반왕자, 불새, 회색늑대’ 《세계의 동화》, 현대문학, 서울, pp208-220.

왕과 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왕자의 이름이 이반이다. 정원에 황금 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가 있다. 불새가 날아들어 매일 밤 황금 사과 두 개를 따서 날아가 버린다. 아들들에게 왕이 지키라고 하였으나 첫째도 둘째도 잠이 들어서 불새를 보지 못하고 3일째에 이반이 기다렸다가 불새의 깃털 하나만 얻어서 임금께 드리자 그 새를 가져오는 자에게 왕이 살아있는 동안 나라의 절반을 주고 자신이 세상을 뜬 뒤에 나라 전체를 주겠다고 한다. 시기심에 막내를 두고 두 형만 떠난 뒤에 막내도 아버지를 졸라 말을 달린다. 들판 한가운데 글귀가 “이 기둥에서 곧장 앞으로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은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릴 것이다. 오른쪽으로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은 자신은 무사하고 건강하겠지만 말이 죽게 될 것이다. 왼쪽으로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은 말은 건강하고 무사하겠지만 자신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왕자는 오른쪽을 택했다. 말이 죽은 후에 회색늑대가 나타나 등에 타고 도움을 받아 불새가 있는 곳을 가게 되나 새만 꺼내고 새장을 건드리지 말라는 충고를 지키지 못해 체포된다. 그들의 왕이 황금 갈기 말을 구해 오면 용서하고 황금 새장과 불새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회색 늑대에게 그대로 말하고 또 늑대의 등에 타고 마구간에 이른다. 또 늑대는 황금 갈기의 말만 가져오고 벽에 걸린 황금 고삐를 손대지 말라고 충고한다. 또 이를 지키지 못해 잡히고 먼 나라의 아름다운 공주를 데려오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는다. 다시 늑대가 공주가 있는 궁전에 데려간 다음 이번에는 왕자를 기다리게 하고 늑대가 공주를 데려와서 함께 태우고 가는데 왕자가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자 늑대가 공주로 변하여 가짜 공주와 황금 말을 바꾸게 된다. 또 늑대가 황금 말로 변하여 가짜 역할을 하고 왕자는 공주와 황금 말과 또 불새를 데리고 아버지 왕이 계시는 가까이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잠이 든다. 마침 곁을 지나던 형들에게 발각되어 동생은 죽고 토막 내어진다. 형들이 공주와 말과 새를 데려가고 왕자는 한 달 동안 죽은 채로 누워 있다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회색 늑대에게 발견되어 늑대도 도와주고 싶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가 까마귀가 어린 두 새끼를 데리고 시체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본다. 까마귀에게 부탁하여 구만 리 먼 곳 서른 번째 왕국에 가서 생명의 물과 죽음의 물을 갖다 달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왕자가 왕국에 돌아온다. 마침 형이 막 공주와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연 자리에 앉아 있는 때였다. 살아 돌아 온 왕자를 본 공주가 왕에게 이제까지의 사실을 말

하면서 형들은 감옥에 갇히고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대상민담을 포함한 4가지 이야기들을 비교해 보면

민담 제목	황금 새	황금사과	황금사과와 공작 아홉 마리	이반왕자, 불새, 회색늑대
작가	그림형제			알렉산드르 N. 아파나세프
나라	독일	프랑스	유고	러시아
등장인물(제시부)	왕과 3명의 왕자	아버지와 3명의 아들	왕과 3명의 왕자	왕과 3명의 아들
상실	황금사과	황금 사과	황금 사과	황금 사과
도둑	황금 새	바위 뒤 구멍의 사자	공작 아홉 마리 (소녀)	불새
주인공(자아)	셋째 왕자	셋째 아들	셋째 왕자	셋째 왕자
도움 주는 안내자	여우	노파	할머니, 동물들 (물고기, 여우, 늑대)	회색늑대
과제	황금 새, 황금 말, 공주, 산	철, 은, 금의 성의 사자퇴치 후 아가씨들 구출	공작이 변한 소녀 찾기, 뱀, 말 구하는 법	새, 말, 공주
1차 과제 수행 후 위험	우물 → 여우의 도움	저승 → 할머니 조언, 야수의 도움	12번째 방, 뱀 → 말	형들에 의해 죽어 토막 → 늑대, 까마귀, 생명의 물
두 형에 대한 처리	처형	다른 아가씨들과 결혼		감옥
종결	결혼 후, 여우 → 공주의 오빠, 마법이 풀리고 행복	황금 성 아가씨와 결혼, 복수심 강한 성격이 아니다.	아내와 왕국에서 행복	왕국에서 결혼해서 행복

이 이야기의 중심 모티브는 1) 기쁨의 정원, 2) 황금 사과의 상실, 3) 왕과 세 명의 왕자, 4) 막내 셋째 왕자의 출발, 5) 다른 세계에서 온 도둑(새, 사자, 공작, 불새), 6) 여우의 출현, 7) 새, 말, 공주의 연결, 8) 시련과 과제 해결, 9) 죽음의 고비와 희생, 10) 공주와의 결혼, 11) 여우의 머리와 발 자르기(변신)들을 생각해 본다.

분석심리학적 해석

1. 성 뒤쪽에 아름다운 기쁨의 정원을 가진 왕

대상 민담에서 왕이 소유한 아름다운 정원은 성의 뒤쪽에 있다. 정원은 잘 가꾸어 놓은 뜰이다. 후원이라고 말하는 뒤쪽의 정원은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은밀한 요소를 갖고 있다. 아름다운 그리고 기쁨을 주는 정원이라는 수식어에서 집단정신의 핵심인 왕이 아끼며 거기에서 위안과 행복을 얻는 곳이다. 정원은 꽃과 나무를 기르는 장소이다. 자연을 자신의 주거 공간 안에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키우는데 조화롭게 정돈하여 아름답게 꾸미고 그래서 기쁨을 얻는 공간이다. 자연 그대로의 숲이 무의식이라면 정원은 인위적인 개입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의식에 가까운 곳이다. 식물을 키워낸다는 점에서는 정원은 여성적 혹은 모성적 요소를 짐작케 한다.⁶⁾ 그 곳의 주인인 왕은 심리학적으로 자기(Self)의 상, 삶의 중심 혹은 집단정신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⁷⁾

로버트 존슨은 《여성심리의 이해(신화로 읽는 여성성 She)》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에는 항상 왕국이 등장하는데, 왕국은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⁸⁾ 이 민담에서는 4개의 왕국이 나온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황금 사과가 있는 곳, 황금 새가 있는 왕국, 다음에는 황금 말이 있는 곳 그리고 공주가 사는 왕국이다. 그 하나, 하나가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공에 의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곳들이다.

폰 프란츠는 보통 민담에서는 영웅이 있어 한 왕국에서 다른 왕국으로 가서 끝에 가서는 그들을 연합시킨다고 하며, 이로써 한 왕국의 특성은 다른 왕국의 특성을 보상한다고 하였다.⁹⁾

고대사회에서는 왕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이거나 신의 화신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다. 그래서 약천후나 홍작 등의 자연재해에 왕의 책임이 있음을 말하기도 한다. 프레이저는 중국 책에 인용된 내용을 소개하여 고대 한국에서 비

6) Cirlot JE, Jack Sage(1983) : *A Dictionary of Symbols*. 2nd. edition,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and Henley, p115.

7) 폰 프란츠/심상영역(2007) : 《용 심리학과 고양이》, 한국 심층심리연구소, pp46-47.

8) 로버트 A 존슨, 고희경 역(2006) : 《신화로 읽는 여성성 She》, 동연, 서울, p14.

9)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 심상영 역(2007) : 같은책, pp45-46.

가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적게 와서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모두 왕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살해당한다고 적은 것도 있다.¹⁰⁾ 왕이 노쇠하거나 결함이 있으면 제거되는 이야기는 많다. 왕의 정원에서 어떤 중요한 것(황금 사과)의 상실은 왕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된다. 설혹 그것이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완전함에는 손상을 주는 요소가 되어 왕의 절대 지배력의 상실을 시사한다. 이는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2. 황금 사과의 상실

민담들은 첫 제시부에서 가난한 상태를 강조하거나 평소 아끼던 중요한 것을 상실한 뒤에 아버지 혹은 왕의 명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민담 ‘구복 여행’에서 심한 가난 때문에 복을 구하러 떠나는 것도 유사한 출발이다. 개성화 과정의 시작은 대개 ‘버려짐, 분리, 상실, 가난’ 이러한 것들이 자극이나 계기가 된다. 실제 임상 진료 현장에서 중년 이후의 사람들이 정신과 외래 진료실을 찾는 경우에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해 오던 어떤 것을 상실한 다음에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사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액을 몰아내고 복을 부르는 삼색 과일이라고 해서 조상의 제사나 산신제에서 빠뜨리지 않고 제물(祭物)로 쓰이며 각종 굿거리에서 차리는 중요 제수 중의 하나이다. 또 중국 당나라에서는 사과는 맛이 달아서 능히 새를 오게 한다하여 임금(林檎)이라 하던 것이 후에 능금이 되었다고 한다. 큰 것을 사과, 작은 것을 능금이라고 한다. 사과는 결실 혹은 성숙을 상징하고 생김새가 둥글어서 전체성 혹은 일체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기독교에서는 사과가 양면성을 가져서 악, 유혹, 죄를 상징하거나 예수나 성모마리아와 함께 그려진 사과는 새로운 아담, 구원의 의미를 지닌다. 또 지적 욕구, 사랑의 고백, 불사를 뜻하기도 한다.¹¹⁾

이 이야기에서 도둑맞은 것은 보통 사과가 아니다. 왕이 귀중하게 아끼어 날마다 그 숫자를 헤아리는 황금사과이다. 황금은 본래 ‘돈’ 또는 ‘재물(財物)’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거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비유하여 쓰는 말이다. 또

10)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정덕 옮김(2001) : 《그림으로 보는 황금가지》, 까치, 서울, p81, p129.

11) 한국문화 상징사전 편찬위원회(2000) : 한국문화 상징사전2. 동아출판, 서울, pp372-374.

사과의 색이 황금빛으로 익은 사과이니 변하지 않는 완전한 물질로 완성된 과일이다. 폰 프란츠는 용이 연금술사의 현자의 나무(philosophical tree)에 대해 글을 쓰면서 현자의 나무는 은 사과와 금 사과를 맺는데 금 사과는 현자의 돌(philosopher's Stone)과 같은 것이라 했다고 하였다. 또 연금술에서 황금은 주로 부패하지 않는 물질을 상징한다.¹²⁾

그림형제 동화 전집에 수록된 210가지 이야기 중에 '황금'이란 수식어가 들어간 제목이 7가지 있다. 29. 황금 머리카락, 36. 요술 식탁, 황금 당나귀, 자루 속의 몽둥이, 57. 황금 새, 64. 황금거위, 85. 황금 아이들, 92. 황금 산의 임금님, 200. 황금 열쇠라는 제목들이 그것이다. 또 이야기 내용에서 '개구리 왕자'에서는 황금 공이 언급되고, '황금 머리카락'에서도 황금사과, 황금 당나귀 등이 등장한다.¹³⁾ 로버트 존슨은 《내면의 황금(Inner Gold)》에서 우리는 모두 내면에 황금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로서 심리적 투사를 설명하려고 한다.¹⁴⁾

황금 사과는 전체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의 상실이 지배적 전통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왕 역시 전체성을 상징하고 절대자이면서 권위와 완전성을 상징한다면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상실한 것은 집단 의식으로서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거룩하고 신성한 왕이 병이 들거나 그 힘을 잃으면 왕을 실제로 죽이거나 그 대신 정신적인 죽음과 재생의식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되거나 하는 것이 중국이나 이집트처럼 여러 고대국가에서 일어난다.¹⁵⁾

여기서 왕의 황금 사과에 대한 태도는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과가 무르익으면 그것을 따서 사람이 먹든지 아니면 그 달콤함에 능히 새를 불러들여 그것을 먹고 씨앗을 더 먼 거리에 배설하여 새로운 나무를 길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왕은 황금 사과를 날마다 세어두고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태도를 보인다. 어찌 보면 사로잡고 있어 그 생명력을 억압하고 있다. 왕들의 이러한 태도는 뒤에 오는 다른 왕국에서도 귀한 것(황금 새, 황금 말, 공주)들을 가두고 지키는 행태를 보인다.

12) 폰 프란츠, 심상영 역(2004) : 《용 심리학과 고양이》, 한국 심층 심리 연구소, p91.

13) 그림형제, 김열규 역(2007) : 《그림형제 동화전집》, 지식 산업사, 서울.

14) 로버트 A. 존슨, 박종일 역(1910) : 《내면의 황금》 인간사랑, 경기.

15) 폰 프란츠, 심상영 역(2004) : 《용 심리학과 고양이》 한국 심층 심리 연구소, pp42-44.

3. 왕과 세 명의 왕자

민담의 제시부는 그 민담이 가지고 있는 심리학적인 문제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곳이다.¹⁶⁾ 이야기의 첫 등장인물들은 왕과 세 명의 아들들이다.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가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어머니(아내)도 누이(딸)도 빠진 상태이다. 남성적 요소에 치우쳐 있어서 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성이 절대적으로 결핍된 상태이다. 앞에서 예를 든 3가지 유화 모두 마찬가지이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세 아들만 사는 가정의 모티브는 몽골의 “모래언덕 나라”, 러시아 민담 “개구리 공주”, 그림 동화의 “세 개의 깃털”, 중국의 장족의 민담 “셋째와 족장”에서도 나타나고¹⁷⁾ 또 한국 민담의 ‘삼형제’에서도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삼형제가 등장한다.¹⁸⁾ 폰 프란츠는 그림동화 중에서 최소한 50~60개 이상의 이야기가 왕과 세 명의 왕자로 시작한다고 하면서 시작이 순전히 남성성으로만 구성되어, 정상 가족에서 볼 수 있는 어머니도 여자 형제도 없는 상태로 출발한다는 것이다. 영웅이 남성성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부족한 여성적 요소들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담의 구조상 이야기 종반에 결혼을 통해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가 결합하게 된다고 하였다.¹⁹⁾

이 민담에서도 어머니가 없는지 아니면 있는데도 언급하지 않는 것인지 존재가 없고 치우친 남성적 요소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여성성의 결여라는 민담의 상황에 전통적 남성적 행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감정과 본능의 기반이 없는 것을 나타낸다. 주인공으로 대변되는 자아는 개성화 과정을 통해서 의식이 일방적으로 남성에 치우친 것을 지양하고 여성성을 보충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이 민담에서 일어나야 할 일인 듯하다. 실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왕국들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여성적 요소를 가진 보물들이 있어 왕자의 여행길의 중간목표가 된다.

16) 이부영(1995) : 《한국 민담의 심층 분석》, 집문당, 서울, p40.

17) 김성민(2009) : 몽골민담 ‘모래언덕 나라’와 C. G 융의 개성화 과정, 《심성연구》, 24(1) p74.

18) 정인섭 지음, 최인학, 강재철 역편(2007) : 《한국의 설화》, 단국대학교 출판부, 서울, pp306-312.

19) von Franz ML(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p50-51.

4. 두 형의 실패 후 막내인 셋째 아들의 출발

그런데 처음부터 주인공인 셋째가 왕의 명령을 받아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황금 사과를 지키라는 아버지 왕의 명령에 따라 큰 아들부터 시도해보지만 잠을 자느라 흠쳐가는 도둑이 누구인지조차 발견하지 못한다. 도난은 밤에 일어난다. 밤은 무의식의 세계이다. 의식이 깨어있지 못하면 보물인 황금 사과를 무의식에 잠기게 한다. 여기서 그 형들은 ‘자아’인 주인공의 먼저 사용되는 우월기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머리 즉 지적 기능이 더 뛰어난 자들로 아버지인 집단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더 기대할만한 기능이다. 두 형들의 실패 후에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도 내키지 않는 아버지인 왕을 설득하는 자신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서 허락된다. 우리 속담에 “형 만 한 아우 없다”는 말이 있다. 이야기 속에서도 비슷한 오래된 집단의식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형들이 황금 사과가 사라진 흔적도 찾지 못했고 막내가 황금 새의 흔적을 발견한 이후에도 왕의 태도는 여전히 그를 믿어주지 않는다.

왜 큰아들부터인가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순서를 내세운다면 앞선 것은 성숙하고 우월할 것이라는 관념이 작용한다. 이 민담에서 실제로 지적 판단을 믿고 나서는 형들이 실패한다. 다른 이야기들에서도 형들의 반복된 실패 후에 못미더운 셋째가 나서서 형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여 결국에 성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패할 줄 알았던 막내가 밤에 사라지는 보물을 지키고 찾아나서는 일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앞서 예로 든 프랑스의 ‘황금 사과’나 유고의 ‘황금 사과와 공작 아홉 마리’, 그리고 ‘이반왕자, 불새, 회색늑대’에서도 같은 구조를 보인다.

폰 프란츠는 왕은 자기(Self)의 상징이라고 한다.²⁰⁾ 또 의식의 4기능 중에서 왕은 지배적인 주 기능이고 두 명의 형들은 보조 기능이라면 막내는 네 번째 열등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²¹⁾ 형들에 비해서 좀 모자란 듯 그래서 늘 셋째는 바보처럼 묘사된다. 바보²²⁾는 세속의 최고 권력자인 왕의 극단에 서있는 존재이다. 바보는 정신적으로 깨닫지 못한 인간으로 자기 앞에 어떤 미래가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나락으로 빠져드는 인간을 나타

20) von Franz ML(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ly Tale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52,

21) von Franz ML(1996) : 앞의 책, p55.

22) 진 쿠퍼(2001) : 앞의 책, p142.

낸다. 그러나 이유경은 ‘분석심리학적으로 가장 어리석고 어린 막내라는 의미는 바로 그가 집단에서 통용되는 지배적인 성향에 전혀 물들지 않았으며 이제 막 새롭게 부상하는 인물상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하였다.²³⁾

형들이 집단 지배의식의 지시에 의해 출발했다면 막내는 ‘자기의 운명에 도전해보고 싶어서’라는 표현처럼 오히려 말리는 아버지 왕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허락을 받는다. 즉 자신의 주관적 의식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새로운 자아는 개성화 과정을 시작한다.

5. 황금 새(다른 세계에서 온 도둑)

황금 사과를 훔쳐가는 도둑은 누구인가? 도둑은 훔쳐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찾아오는 낯선 대상이다. 이 민담에서 황금 새가 사과를 훔쳐 가는 것으로 밝혀지지만 다른 유화에서의 도둑은 공작 혹은 불새이다. 사과가 불새를 부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과가 익었다는 사실은 나무의 주인보다 새가 먼저 안다. 오히려 새가 찾아온다는 것으로 사과가 익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 저자도 지난해 가을 앞마당 감나무의 감이 거의 익어갈 무렵 잠시 한 눈을 팔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새가 찾아와서 쪼아 놓던 경험을 여러 번 했다. 케레니는 헤스페리데스가 뱀 라돈과 함께 황금 사과를 지키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이면서 때로는 헤스페리데스가 바로 황금 사과를 훔치는 도둑이라고 하였다.²⁴⁾ 비슷한 내용의 유화 중 제목이 ‘황금 사과’인 경우도 있는데 이 민담에서는 제목이 ‘황금 새’이다. 제목은 훗날 붙여진 것이겠지만 이야기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 민담에서는 황금 사과보다 그것을 알려주는 황금 새가 더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새²⁵⁾는 초월, 혼, 영, 신의 현현을 상징한다. 공기의 정령, 죽은 자의 영, 승천, 신과의 교류, 그리고 의식의 고양 상태에 이르는 능력을 뜻한다. 새는 주인공의 아니마로 볼 수 있다. 자아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보물을 가져감으로서 주의를 끌어서 결국에 주인공을 다른 왕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다. 대상 민담에서는 새가 도둑이나 다른 유화에서

23) 이유경(2008) : “신화의 형성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해명”, 《원형과 신화, 개정판》, 분석심리학 연구소, 서울, p129.

24) 카를 케레니/장영란, 강훈 옮김(2002) : 그리스신화 1. 신들의 시대, 궁리, 서울, pp99-102.

25) 진 쿠퍼, 이윤기 옮김(2001) :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 사전, 가치, 서울, p33.

는 지하의 사자가 훔쳐간다. 도둑은 하늘에서 오거나 저승으로 표현되는 지하에서 온다. 주인공이 사는 지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집단 의식이 중요하게 생각 하는 황금 사과를 훔쳐감으로써 자아로 하여금 무의식에 시선을 돌리게 하는 자극이 된다. 무의식이 의식과 동화하려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의식의 태도에 변화를 시도한다. 대상이 새라도 이야기마다 약간 다른 표현으로 황금 새, 공작, 불새 등으로 표현된다.

6. 여우의 출현(동물의 도움)

민담에서 도움 주는 동물의 주제는 자주 나타난다. 의식화되지 못한 동물 상태에 머문 본능의 욕구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의 안내를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폰 프란츠는 <민담에서의 악의 처리>에서 도움을 주는 동물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또 동물의 충고를 일시적으로 듣지 않을 수는 있으나 충고를 근본적으로 어길 때는 그는 끝장이라고 하였다.²⁶⁾

주인공인 셋째 왕자, 즉 자아가 처음에는 그것이 자신의 개성화 과정이란 것을 알지 못한 채 전체성의 실현을 위해 떠나는 여행을 한다. 그가 성공하려면 동물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충고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데 주인공은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이성적으로는 불합리한 여우의 권유를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게 된 뒤에 성공하게 된다.

용은 동물이란 아직 사람처럼 의식 속에 들어가 헤매지 않고 그 생명을 지탱 하는 힘이 고집스런 자아와 대립하지 않아 그 자신 안에 있는 의지를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킨다고 한다. 또 만약 동물이 의식화되어 있다면 인간보다 더 경건했을 것이라고 한다. 용의 주장을 빌리면 이러한 이야기 속 동물들은 인간처럼 행동하고 인간의 언어로 말하고 인간보다 영리하고 지혜롭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독일 민담 <나무 위의 공주>에서 소년을 돕는 늑대를 기술했고 있다 이 경우에 가이스트 원형이 동물의 형상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한다.²⁷⁾ 한국 민담에서 <나무꾼과 선녀>의 사슴이나 이 주어진 민담에서 여우처럼 주인공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에 보답을 주려하는 동물의 조언

26) von Franz ML(1995) : *Shadow and Evil in Fairly Tale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145.

27) 용 C.G.(한국 용 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2002) : 용 기본 저작 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서울, p305.

을 지켜야만 한다. 용이 동물의 형태로 민담에 나타나는 심혼의 상징적 표현을 설명하면서 동물의 형상은 그것으로 표현되는 내용과 기능이 아직 인간 외부의 영역 즉 인간 의식 너머에 있음을 가리킨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귀령의 영역, 초인적인 것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이하인 동물적인 것에 관여한다고 하였다.²⁸⁾

그런데 이 민담에서 여우는 누구인가? 여우는 술책, 교활함, 위선, 나쁜 피, 음험함을 가진 특성을 나타낸다.²⁹⁾ 그러나 <어린왕자>³⁰⁾에서 여우는 '이제 나만의 비밀을 알려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마음으로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하듯이 지혜를 전달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서양에서 여우는 많은 경우에 긍정적이며 또 남성적 의미를 내포하는데 비해 한국 민담에서는 여우는 대개는 여성적 요소로 보인다. '여우구슬 먹은 아이'³¹⁾에서는 여우가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하여 사람을 홀리거나 구슬을 가지고 젊은 사람의 입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앗아 혼을 빼앗아가는 일을 한다. 서당 선생님의 권유로 그 구슬을 아이가 삼켜버리고 바로 하늘과 땅을 보면 세상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까지를 깨닫게 된다는데 안타깝게도 아래쪽 한쪽만 봤더니 땅의 이치만 알게 되었다던 이야기가 있다. 또 '여우누이'에서처럼 심리학적으로 부정적 아니마 상으로서 여우는 소와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는 무서운 요물의 모습으로도 자주 출현한다.³²⁾ 동양에서 여우에게 투사하는 내용들이 서양에서는 늑대가 나타내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앞서 제시한 민담 유향 중 마지막 '이반 왕자, 불새, 회색늑대'에서는 대상 민담에서 여우가 하는 역할을 회색늑대가 대신한다.

이 민담에서 여우는 그 꼬리에 막내 왕자를 태우고 원하는 공간까지 이동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꼬리에 초월적인 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꼬리는 머리에 비해 가장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한국의 민담에서도 여우의 꼬리는 자주 강조된다. 오랫동안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실패한 구

28) 용 C.G.(한국 용 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2002) : "민담에 나타난 정신현상에 관하여", 용 기본 저작집, 2, <월형과 무의식>, 솔, 서울, p304.

29) 진 쿠퍼, 이윤기 옮김(2001) :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 사전>, 까치, 서울, p144.

30) 생텍쥐페리, 최내경 역(2003) : <어린 왕자>, 베네티스만 코리아, 서울, p98.

31) 임석재(2003) : 임석재전집 6. 한국구전설화 충청남북도편, 평민사, 서울, pp331-332.

32) 이도희(2006) : '여우누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심성연구>, 21권 1호(33), pp1-73.

미호의 이야기처럼 꼬리는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는 초월적 존재이다. 꼬리가 많을수록 힘이 강하여 구미호는 그 꼬리가 아홉이나 되어 일시적으로 사람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조만간에 완전히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존재에 가깝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을 꼬리에 태우고 한 왕국에서 다음 왕국으로 이동시킨다. 꼬리는 평형과 안내를 상징하고, 판단력과 적응력을 나타낸다고 한다.³³⁾ 또 꼬리는 머리와 대비 된다. 이야기 시작점에서 머리를 믿고 도전하던 형들의 실패와 나중에 여우가 머리를 잘라 달라 부탁하는 것을 본다. 머리는 상징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의 것 즉 우월기능 혹은 사고, 판단 기능과 연관 시켜 볼 수 있다. 반면에 꼬리는 뒤따라오는 것으로 흔적처럼 누군가 그 본체를 감추면 꼬리를 감췄다고 한다.

오랫동안 도를 닦아서 초월적 다른 존재로의 변환을 바로 앞둔 구미호와 비슷한 동물로 한국의 <구북여행>에서 강을 건너주던 이무기를 기억하게 한다. 천년의 도를 닦고 나서도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하는 이무기가 주인공에게 강을 건너게 해줌으로 의식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듯이³⁴⁾ 이 민담에서도 주인공은 여우에 의해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이무기도 여우도 주인공을 돕는 역할을 한 뒤에 용이 되어 승천하거나 한 단계 성장한 자아의 도움으로 죽어 해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재생하여 왕자로 변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우는 주인공을 도와 인도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나중에 마법이 풀려 인간으로 변해 공주의 오빠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 동물들이 등장하지만 새와 말은 여우와 다르다. 여우는 인간의 말을 한다. 그리고 인간이 모르는 사실들을 알려준다. 새와 말은 공주와 함께 자아가 만나고 갖추어야 하는 여성적 측면 즉 보물이고 여우는 처음에 상실한 사과에서 시작하여 여성성을 만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안내자이다.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여우는 주인공에게 자신에 대해서 하는 부탁이 시기에 따라 다르다. 처음에는 죽이지 말라, 나를 해치지 말라. 총을 쏘지 않으면 새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한다. 동물로 표현되는 본능적인 욕구를 무시하거나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민담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악에

33) 진 쿠퍼, 이윤기 옮김(2001) : 앞의 책, p353.

34) 박상학(2009) : “한국민담 ‘구북여행’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심성연구》, 24(2), pp174-210.

대한 대처법이다. 주인공이 공주와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까지의 동물적 열등기 능으로 표현되는 형태가 자아가 성장한 뒤에는 변환을 피해야 한다는 것인지 자신을 죽여 머리와 발을 잘라달라고 한다. 앞뒤가 전혀 다른 주장인데도 여우는 집요하게 그것을 원하고 결국에 자아는 이를 수용한다. 죽음의 주제는 한 단계에서 그것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변환하는 것이다. 죽음은 마법에 사로잡힌 공주의 오빠 즉 왕자의 마법을 푸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 왕국, 왕자의 다른 측면을 함께 갖추고 난 뒤에서야 신성한 결혼의 조건을 갖춘다고 할 수 있다. 그전의 행복한 결합의 상태에서 뭔가 빠진 것을 보충하여 개성과 과정의 전체가 되는 것을 마침내 완성한다.

7. 황금 새, 황금 말, 황금성의 공주

주인공이 개성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겪어야 하는 여러 과정이 민담에서 차례로 묘사된다. 각 과정마다 고비는 그가 목적을 위하여 가는 길에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물론 주인공이 처음부터 그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알고 떠나는 여행은 아니다. 그는 그저 눈앞에 주어진 한 단계 한 단계의 과정을 갈 뿐인데 결과적으로 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즉 사과가 없어지는 것을 지키는 단계에서의 두 형들의 실패는 졸음으로 잠에 빠져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무의식에 잠겨서 의식화하지 못함으로 새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자아의 두 번의 실패 즉 만이들과 둘째의 특성은 머리를 민고서, 동물의 부탁을 무시하고 해치려 한 것과 충고를 무시하고 머리로 판단한 것이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신나는 여인숙에서 왕처럼 새와 아버지의 그동안 모든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그 속에 갇혀 사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자아의 교만 다른 말로 팽창(inflation)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한편 성공한 막내의 특성은 각성 상태에 있고, 마음이 어질어서 여우를 해치지 않고, 여우의 첫 번째 충고를 지켜 초라한 여인숙에서 자는 것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공적 요인이다. 의식이 무의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동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여인숙은 목적지를 향해가는 중간단계의 쉼터인데 그곳을 목적지 인양 정체하게 되는 주인공의 형들의 실패까지도 주관단계의 꿈의 해석처럼 이는 자아의 실패의 단계로 보아야 한다. 머리를 민고 동물의 충고를 무시하고 논리로 판단한 결과로 그

곳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한다.

주인공 자신의 단계에서 실패도 황금 새에 어울리는 황금새장을 욕심내다가 한 왕국에 사로잡힌다. 여기서 새장은 황금으로 되거나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며 가두는 목적이 아닌 새를 넣어 옮기는 기능으로서 충분하다. 유용한 기능으로서 새장이 아닌 모양으로서의 새장은 그를 가두게 하는 것으로 쉽게 버릴 수 없는 오랜 동안의 감옥이 될 수 있다. 이는 다음 단계의 말과 안장의 관계(유화에서는 황금 고삐)에서도 계속되고 또 그 다음에는 공주가 부모에게 하는 작별인사는 마땅히 해야 할 인간으로서의 도리인데 여우는 이를 못하게 하라고 한다. 여기서도 자아는 아직 그것을 버릴 수 없는 또 다른 고정 관념에 사로잡힘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고 이들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들은 분리보다 연결되어 있어 결국에는 함께 가져와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민담에서 주인공이 지키지 못하는 충고의 내용들은 집단 의식의 측면에서 보면 극히 당연한 것의 함정이다. 개성화 과정에서 페르소나를 구분하고 로고스의 판단을 잠시 보류해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히 어렵다. 제시되는 금기들은 다른 민담들에서처럼 늘 주인공이 거쳐야만 하는 과정으로 인도하는 어찌 보면 의식성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주인공에게는 뿌리칠 수 없는 매력적인 유혹이다. 용은 금지만큼 주의를 끄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그것은 불순종을 유발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였다.³⁵⁾ 주인공인 의식의 측면에서는 실패이고 고통을 겪게 되지만 이는 그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복종(submission)이란 주제는 성인 의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한다.³⁶⁾

대부분의 민담이 그러하듯이 독일 민담 <나무 위의 공주>에서 주인공은 열어서는 안 되는 한 방을 결국 열게 되는 금기를 범한다. 앞서 제시한 유화, 유고의 <황금사과와 공작 아홉 마리>에서도 금지된 12번째의 지하실을 여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에서도 사슴이 아이를 4명을 낳을 때까지는 날개옷을 돌려주지 말라는 충고를 지키지 못한다.³⁷⁾ 이처럼 금기는 안

35) 한국 용 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2002) : 앞의 책, p312.

36) 칼 구스타브 용, 이부영 외(1993) :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집문당, 서울, p135.

37) 홍태한(2010) : 《한국 구전 설화집》, 민속원, 서울, pp100-105.

타깝게도 늘 깨진다.

이 민담에서 만나는 4개의 왕국은 본래 왕자가 속한 아버지의 왕국, 황금 새가 있는 왕국, 황금 말이 있는 왕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주가 있는 왕국이 그이다. 주인공인 자아는 그의 황금 새를 찾으러 가는 여행에서 여우의 충고를 지키지 못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음 단계를 거쳐 와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실패는 주인공인 자아가 우연을 가장한 즉 금기를 깬 때문으로 우선은 보인다. 그러나 이 민담의 전체적 흐름은 반드시 금기는 깨어지게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오히려 다음 단계로 그를 이끄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다음 단계의 여정은 주인공이 감당해야 할 꼭 필요한 성인과 과정이다. 각 단계마다 주인공 자아는 난제를 풀어야 하고 또 고통을 당해야 한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사로잡힘이고 죽음의 선고는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무언가 귀중한 보물을 얻기 위함이다.

폰 프란츠는 만약 자아가 여우의 말대로 즉 본능의 권유에 따르면 황금 새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동물적 본능의 권유는 영웅이 더 깊은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 근시안적이며 얕은 단계의 충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³⁸⁾ 주인공은 여우의 충고를 따르지 않아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실패처럼 보이는 갇히는 상태는 목적론에 비춰보면 새로운 탄생 바로 직전의 잠복 상태를 의미한다.³⁹⁾ 미리 알지 못하는 상황의 전개는 무의식 전체 즉 자연에 의해 주인공이 황금 새와 황금 말과 황금성의 공주 모두를 얻도록 유도한다. 주인공은 깨닫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황금사과, 황금 새, 황금말의 경우처럼 이들은 단순한 사과, 새, 말이 아니고 특별한 대상이다. 그 가치를 가장 상위의 단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황금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다. 최상의 것인 황금은 변하지 않는 완전한 물질, 왕이나 황제의 색깔을 이야기 하고 그 밝음이 식물 혹은 동물의 형태로 있으나 가장 의식화하기 좋은 상태이기도 하다.

38) von Franz ML(1990) : *Individuation in Fairy tales*, Revised ed. Shambhala, Boston & London, p175.

39) 한국 융 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2006) :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서울, p116.

8. 시련과 과제의 해결

민담에서 주인공이 이야기 진행 과정 중에 고통당하는 기간이 3일 밤인데 이처럼 ‘고통당하는 3일 밤’의 주제는 루마니아의 민담 <고양이>에서도 나타난다.⁴⁰⁾ 숫자 3은 조화 혹은 전체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완전한 숫자이면서 내면적으로 안정된 숫자이고 고유의 안정성을 가진 숫자이다. 민담에서도 삼 형제, 세 자매, 셋째 아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고 이 대상 민담처럼 3일 밤을 고통을 당하거나, 세 가지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

이야기의 서술구조도 대개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시작은 가난이나 상실로 시작하고, 두 번째 요소로 이별, 모험, 여행을 감행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셋째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혹은 일을 성취하여 돌아오는 단계로 구성 된다.

등장인물의 배치 상황도 왕처럼 임무를 주는 사람과 셋째 왕자처럼 주인공이 중심에 있고 이는 나중에 영웅이 되고, 세 번째는 도움을 주는 동물이나 인물이 등장하는 3의 구조로 이루어진다.⁴¹⁾

이 민담의 주인공은 황금 새가 있는 곳에서 다음날은 황금 말이 있는 왕국에서 그리고 마지막 밤은 공주가 속한 왕국에서 여우의 충고를 지키지 못해서 갇히게 되고 사형선고를 받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부여 받게 된다. 영웅이 되는 과정에서 그가 겪어야 하는 개성화 과정 혹은 성인화 과정의 난제라고 볼 수 있다. 결국에 앞서 폰 프란츠가 말한 대로 영웅은 여러 왕국에서 이룩한 성취에 따라 이 왕국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게 된다. 폰 프란츠는 민담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항상 남자영웅들이라고 한다. 또 항상 여성적인 것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도 남자영웅인데 이는 행동을 신뢰하는 남성적인 의식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남자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 그것은 남자가 수동적인 여성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만 견디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급히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나다운 남자에게는 단지 고통을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⁴²⁾

주인공이 여우에 의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남성

40) 폰 프란츠, 심상영(2007) : 《용 심리학과 고양이》, 한국 심층 심리 연구소, 서울, p162.

41) 오토베츠, 배진아, 김혜진 옮김(2004) : 《숫자의 비밀》, 다시, 서울, pp41-52.

42) 폰 프란츠, 심상영(2007) : 앞의 책, p162.

적 요소에 익숙한 자아가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여성적 요소를 경험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주인공의 4번째 과제는 앞에서의 과제들이 무엇을 얻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가로막는 장애물인 산을 없애는 것이다. 산은 난관이자 그 극복, 또는 자기 발전과 상승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⁴³⁾ 또 나무, 바위, 물 그리고 대지처럼 산이 생성 상징으로서의 여성원형상일 수 있다.⁴⁴⁾ 산은 세계의 중심이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산 정상에 완전한 의식 상태를 나타내며, 신들이 사는 장소이고 산을 통해 신과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산은 지조, 영원, 견고함, 정적을 상징하기도 한다.⁴⁵⁾

이 전에는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충고를 지키면 되었다면 여드레 안에 산을 없애는 문제는 스스로 이레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한 다음에야 저녁에 여우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게 된다. 여우의 표현대로 자아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가서 꼭 쉬어라. 내가 대신 해줄 테니’ 한다. 여드레의 숫자 ‘8’은 균형과 안정의 수이면서 전체성을 나타내는 숫자 4가 두 개 합해진 수이고, 2를 세 번 곱한 수이다. 8은 구원과 부활의 수라고도 한다. 8일은 7일 다음에 오는 새로운 시작의 하루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수의 부활이 죽은 지 한 주가 지난 첫날 흔히 말하는 여덟 번째 날에 이루어졌다.⁴⁶⁾

어려움에 빠진 자아를 돕는 방법에 있어서 여우는 이제까지의 태도와는 다른 점을 보인다. 즉 여우가 바로 도와주지 않고 주인공이 7일 동안을 부지런히 일했다 해도 다람쥐 눈곱만큼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낙담할 때 도움을 준다. 자아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야 초월적 존재가 작용한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여우의 힘을 빌려 결국에 왕자는 공주와 황금 말과 황금 새를 동시에 갖게 된다. 이로서 자아의 개성화 과정에서 여성적 요소 즉 아니마적 측면으로 짐작되는 세 가지 보물 즉 공주와 말과 새를 얻어 여성성을 보충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43) 최연숙(2007) : 《민담, 상징, 무의식》, 知 & 智, 영남대학교 출판부, p79.

44) 이부영(1995) : 《한국 민담의 심층 분석》, 집문당, 서울, p206.

45) 진 쿠퍼(2001) : 앞의 책, pp225-226.

46) 오토베즈, 배진아 김혜진 역(2009) : 《숫자의 감춰진 비밀》, 푸른 영토, 경기도, p62, pp120-122.

9. 여우의 부탁과 이를 지키지 못한 주인공의 또 다른 시련(죽음의 고비와 희생)

다음으로 여우의 부탁이 있다. 숲에 닿는 대로 자신을 쏘아 죽인 다음 머리와 발을 잘라 주세요. 차마 이제까지 도움을 받은 주인공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여우는 체념한 듯 마지막 충고로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한다. “목매달려 죽을 목숨을 사지 말고 우물가에 앉지 말라.” 무슨 말인지 자아는 알 수 없다.

결국에 형들의 목 매달림의 의미는 상징적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교수형을 당하는 꿈은 머리를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 즉 지적인 능력이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고 폰 프란츠는 말한 적이 있다.⁴⁷⁾ 죽음은 예전의 모습이나 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급진적이고 완벽한 변화를 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주인공은 여우의 부탁을 이해하지 못한다. 동물의 상태를 죽여 머리와 발을 잘라 달라는 것은 미숙한 자아의 입장에서는 해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우는 ‘부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는 그가 발전적 변화를 피하는 변신을 돕는 행위일 수 있다. 주인공은 여우의 충고를 어기고 형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를 투자하지만 오히려 다시 그들에게 자신의 공로를 빼앗기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형들은 상징적으로 그(자아)의 우선하는 지배관념이 결국에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 형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머리를 밟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던 과정의 실패자들이다.

아직도 자아는 자신의 판단 그리고 의식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에서는 자신의 개성화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아직 머리를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여우가 자신을 죽이고 머리와 발을 잘라 달라는 부탁을 아직 시행하지 못한 까닭에 그는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된다.

모든 과정이 끝난 것 같은 막내 왕자가 황금 새와 황금 말과 황금성의 공주 모두를 구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죽음을 앞둔 형들을 구하려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이 차지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이와 유사한 주제는 ‘지하국 대적퇴치’ 설화나 앞서 언급한 다른 유회들(‘황금사과’, ‘이반왕자, 불새, 회색늑대’)에서도 이야기가 완성되고 끝나려는 마지막 순간에 보물

47) Fraser Boa 저/박현순, 이창인 공역(2004) : 《용 학파의 꿈 해석》, 학지사, 서울, p67.

을 잃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아직 그의 여행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명의 형들은 자아의 입장에서 보면 의식의 다른 태도로 볼 수 있다. 집단 정신의 우선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함으로 그 때문에 무의식에 비교적 가까운 막내는 또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막내(자아)도 두 형들을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여우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제는 의식의 판단과 의심 없이 순순히 동물적 본능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 들여서 옷을 가난한 사나이와 바꿔 입으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형들)을 속일 수가 있다. 여우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서 자신을 해친 형들로 대변되는 상대적 악에 대처하는 방법은 정직한 곧이곧대로 표현이 아니라 허름한 옷을 바꿔 입는 것이다. 한국의 ‘구복여행’에서 이무기가 강을 건너 준 다음에 여의주를 하나 뺏으라고 하거나 혹은 ‘황금 머리카락’에서 강을 건너 뒤에서 역시 뱃사공의 노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말해야 하듯이 호사다마란 말처럼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귀중한 것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교훈이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형들은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가 죽음의 위협에서 돌아오자 새가 노래하기 시작하고 말이 먹기 시작하고 공주가 울음을 푼 그쳤다. 이들은 옷차림에 속지 않고 당장에 그를 알아본다.

10. 공주와의 결혼

결혼식은 성장해서 사랑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말한다. 융 심리학에서 결혼은 인간의 통합적 전체성 즉 개성화의 상이다. 신적 경험에서 완성을 찾는 종교적 심층경험의 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 자아는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극복하고 충분히 성장하여야 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여성성을 보충하여야 하는데 공주는 황금 새와 황금 말이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 새는 하늘에서 소식을 전해 주는 그리고 인도해주는 심혼을 뜻한다면 말은 땅에 다리를 닿고 있으면서 빠른 속도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존재이다. 말은 생명과 죽음, 태양과 달처럼 대립되는 양쪽 모두를 상징한다. 말은 또한 지성, 지혜, 정신, 이성, 고귀, 빛, 활력, 민첩함, 재치 있음,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상징한다. 또 한편 말은 본능적인 동물성, 앞날을 내다보는 마술적인 힘, 바람, 바다의 파도를 상징한다. 말은 신들의 혼을 인도하는 신들의 사자이다. 샤머니즘에서 말은 혼을 인도하는 자이며,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여행을 이끈다. 힌두교에서는 탈것으로서의 말은 육체이고 말을 모는 것은 영혼이다.⁴⁸⁾ 말은 자아를 싣고 이동할 수 있고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존재이다. 동시에 주인공인 사람이 사는 세계와 조금 더 가까운 존재이다. 다음은 인간의 모습을 한, 성에 갇힌 공주의 모습으로 점차 발달된 여성성(아니마)의 형태를 갖춘다. 다시 말해서 이 민담 속의 여성성은 정원, 식물성 존재인 나무에 달린 사과 다음에 새 그리고 말 다음에 공주의 형태로 변화한다. 그런데 왕자가 결혼을 위해 어느 것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갖추어야 다음 후계자가 되고 새로운 왕국의 지배자가 되며 공주의 남편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여성성을 만난 뒤에 성숙한 자아의 형태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가 겪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난관은 잠, 유흥(밝고 소란함), 황금 새장, 황금 안장, 인사, 산, 인정 베풀기 들로 이들은 기본적 욕구이거나 유희 그리고 도리이고 거대한 자연 일 수 있다.

두 형은 처형을 당하고 이제 주인공은 공주와 결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이야기라면 왕자와 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하고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다음 단계가 아직 남아 있다

11. 여우의 머리와 발 자르기

왕자가 죽음에서 구출되어 다시 돌아오자 새가 노래하기 시작하고 말이 먹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공주가 울음을 그치는 변화가 일어난다. 진짜 영웅이 돌아오면서 여성성들도 살아나기 시작한다. 감정이 살아남을 볼 수 있다. 일단 결혼이 된다 하여도 왕자와 공주의 결합은 여우가 인간으로 변한 의식화의 상태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한 결합이라고 볼 수 없다. 완벽한 대극의 합일에 의해서 온전한 결혼이 될 수 있고 그를 통해 개성화 과정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숲을 찾아 여우를 죽여 머리와 발을 잘라 마법을 벗겨내는 과정이 남아 있다. 숲은 무의식이다. 숲은 미지의 위협적인 외계를 상징 한다. 숲은 인간의 무의식, 인간 감정의 깊이, 때로는 정신적 어두움, 억압이나 격리의 상징이다. 분석심리학적으로 볼 때 숲은 위험하고 유혹적이고 도발적인 세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숲은 나무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의미한다.⁴⁹⁾

48) 진쿠퍼, 이윤기(2001) :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 사전, 까치, 서울, pp169-172.

49) 한국 융 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2006) : '어머니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투쟁',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서울, p182.

여우가 마법이 풀려 공주의 오빠로 동물의 인간화 즉 변신이 일어남을 의식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우는 아름다운 공주의 오빠로 변해 털끝만한 불행도 없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민담의 마지막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여우의 태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 여우는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하던 태도에서 자신을 죽여서 머리와 발을 잘라 달라고 간곡히 부탁 했을까? 여우는 동물이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의 고통을 인내하고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성실하게 한 다음에야 그 역할이 끝나서 이제 마법이 풀릴 시기가 온 것인가? 아니면 주인공 자아가 이제 준비가 된 것인가? 여우가 부탁하는 머리와 발을 자르는 것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 머리는 군왕, 기초, 앞, 지능, 이성, 근본, 세속적인 가치, 존귀함, 주체, 영혼의 집, 공포를 뜻한다.⁵⁰⁾ 머리는 생명력이 깃든 자리이며 영혼과 그 힘이 머무는 곳이다. 지혜, 마음, 다스림 혹은 지배를 뜻한다. 머리는 지성의 자리이고 동시에 우매의 자리이며 명예와 불명예는 제일 먼저 머리에 쓰는 관으로 나타낸다. 또 꽃의 머리 부분에는 미래의 생명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다.⁵¹⁾

폰 프란츠는 꿈속에서 자신의 죽음이 예전의 모습이나 태도를 완전히 없애고 급진적이고 완벽한 변화를 의미한다며 ‘머리를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은 즉 지적인 능력이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고 하였다.⁵²⁾

발은 대지와 가장 가까운 신체 기관으로 꿈에서는 세속적 현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중 중 생산적 또는 남근적 의미를 갖기도 한다.⁵³⁾ 삶의 근거나 중심이고 약점이고 비천함이며 자아이기도 하다.⁵⁴⁾ 지적인 것을 제물로 하며 남성적 요소이고 현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아가 죽어 단절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뜻할 수 있다.

여우가 말하는 그대로를 들어줄 수 있다면 주인공은 자아가 훨씬 더 성장한 상위 자아의 형태로 이제 무의식에 사로잡혀있던 마법을 풀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일 수 있다. 죽음과 해체 후에 재생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샤만이 되는 상징

50) 한국 문화 상징사전 편찬위원회(2000) : 상징사전 2권, pp203-207.

51) 진 쿠퍼, 이윤기 옮김(2001) :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사전, 까치, 서울, p162.

52) Fraser Boa저 박현순, 이창인 공역(2004) : 《융 학파의 꿈 해석》, 학지사, 서울, p67.

53) 한국 융 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2006) :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서울, p124.

54) 한국문화 상징사전 편찬 위원회(1996) : 한국문화 상징사전 1. 두산동아, 서울, pp315-317.

적 성인화 과정을 같은 맥락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원시종족들에게 널리 인정되고 있는 성인과정(成人過程, Initiation)은 세 가지 단계 즉 고통과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거친다. 시베리아 샤먼들은 특히 이 고행의 과정에서 숙명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들의 사지가 찢기며 살을 뜯어내고 뼈를 추리고 이것을 솥에 넣어 끓이는 참혹한 해체의 고행을 겪은 뒤에 다시 뼈가 추려지고 새로운 살이 붙어 재생하게 된다고 믿는다.⁵⁵⁾

도움을 줬던 동물의 머리를 자르는 부탁은 용이 민담에 나타난 정신현상을 설명하면서 예로 든 민담에서도 두 마리 말이 사냥꾼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젊은이가 그들의 부탁대로 머리를 잘라주자 마법이 풀려서 왕자와 공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⁵⁶⁾ 즉 독일 민담 〈나무위의 공주 Die Prinzessin auf dem Baum〉에서 젊은이가 공주를 다리 셋의 말에 태우고 그녀의 아버지의 왕국에 데려가서 결혼식을 올린 뒤에 다리 넷의 백마가 젊은이에게 두 말의 머리를 잘라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게 하자 말들은 준수한 왕자와 아름다운 공주로 변한다.⁵⁷⁾ 마법에서 풀려난 것이다. 이 민담에서도 결혼한 다음에 여우의 머리와 발을 자르는 것이 일어나고 여우는 마법이 풀려 공주의 오빠로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동물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동물이 죽음을 통해서 마법이 풀려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형태의 민담들이 또 있다. 그 중에 〈개구리 왕자〉⁵⁸⁾는 공주가 개구리를 벽에 내팽개치자 마법이 풀려 왕자가 되고, 우리 민담의 〈소가 된 사람〉에서는 너무나 힘든 소가 죽으려고 무를 먹었더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상민담에서 여우는 본래 공주의 오빠인 왕자가 마법에 걸려 동물이 되어있었던 것이다. 민담에서 사람이 말 못하는 짐승으로 변했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하나의 퇴화를 의미한다. 대개 이와 같은 변화는 마술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마술에 걸린 왕녀나 왕자를 마술에서 풀어내어 그들과 결혼을 한다는 영웅의 이야기들과 결부되어 있다. 사람이 원시적이며 미분화된 동물로 변한다는 말을 바꾸어 어떤 분화된 자아의 기능이 무의식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이 무의식에 잠겨버

55)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p339.

56) 한국 용 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2002) : 민담에 나타난 정신현상에 관하여, p308.

57) 한국 용 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2002) : 앞의 책, p308.

58) 크리스치안 슈트리히 엮음, 김재혁 옮김(2005) : 《세계의 동화》, 현대 문학, 서울 pp672-675.

린 가치 있는 것들을 여러 영웅적인 행위 끝에 다시 찾아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무척 가치 있는 과정이며 분석심리학적으로 이는 개성화 과정이다.⁵⁹⁾

이부영은 동물의 인간화 주제는 동물적 본능의 의식화를 말하며 인격의 분화 발달, 나아가서 자기실현의 과정을 말하며 무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아는 동물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다르없는데 이 상태에서 의식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내적 충동이 곧 동물의 인간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⁶⁰⁾

나가는 말

그림 형제가 수집한 <황금 새>를 대상으로 이를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고 시도 하였다. 이 민담의 제시부는 문제를 암시하는데 왕과 세 명의 아들이라는 치우친 남성적 요소에 의해 자아는 여성적 요소를 보충할 필요성을 느낀다. 정원의 황금 사과라는 중요한 것의 상실 때문에 집단의 지배의식인 왕의 지시에 따라 떠나는 형들은 실패한다. 막내인 주인공은 반대하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허락을 받았다는 점에서 결국 자신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의식의 개입으로 인생의 여정인 긴 개성화 과정을 겪어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주인공은 두 형으로 대면되는 지적인 판단을 믿는 태도의 실패를 겪은 뒤에 의식화를 갈구하는 본능적 요소인 동물, 여우라는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인 여행을 마치게 된다. 개성화 과정은 순조롭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성인이 되려면 고통과 사로잡힘 뒤에 죽음 그리고 재생의 단계를 겪어야 한다. 그래서 자아의 높아진 의식성의 회복 뒤에 결국 공주와의 결혼 즉 대극의 합일이 가능하다. 그 과정들에서 페르소나의 구분과 버림은 쉽지 않은 난관이며 각 단계마다 새로운 왕국 새로운 집단의식의 지배에 사로잡혀 다음 단계의 어려운 과제를 수행한 후에야 해방될 수 있다.

새나 말 그리고 공주는 모두 감시병이 지키는 방에 갇혀 있다. 즉 왕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그 감시병들은 모두 잠들어 있다. 이를 깨우는 것은 그것과 어울리는 것을 줄 때이다. 황금 새장, 황금 안장, 그리고 공주의 부모를 떠나

59) 이부영(1995) : 《한국 민담의 심층 분석》, 집문당, 서울, p199.

60)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p248.

면서 하는 작별인사는 이성적으로는 당연한 도리이다. 그런데 이들은 잠든 감시병을 깨워 주인공은 그들에 의해 사로잡히고 사형을 선고받는다. 여우의 충고를 일시적으로 지키지 못한 주인공은 아직 집단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사로잡힌 채로 죽지 않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다음 단계의 과제를 부여받게 된다. 결국 주인공은 다른 민담에서처럼 여성성을 구출하는 역할을 한다. 유화에서 사자에게 사로잡힌 여성들을 구해내듯이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영웅이다.

주인공이 무의식에서 보물을 가져오려면 무의식 속에 잠겨야 한다. 처음에 황금 새의 깃털 하나가 왕국 전체의 재산에 버금간다는 것이지만 여성적 요소인 황금 새, 황금 말, 공주는 연결이 되어 모두를 가지고 자신이 처음 출발했던 왕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자아가 여행을 하면서 거치는 왕국들은 고난과 성취와 발전을 통해 네 개의 왕국이 통합 된다.

주인공이 죽음에서 살아나 다시 왕국에 돌아온 뒤에 새가 노래하고 말이 먹기 시작하고 공주가 웃음을 찾게 된 것은 감정이 살아난 것이다. 그의 아니마도 생기를 얻은 상태이다.

여성성의 보충으로 보이는 사과, 새, 말, 공주를 얻은 자아가 형들을 사형에 처한 다음에 즉 지적인 능력이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상위의 의식성을 획득하고 그의 아니마인 공주와 일차적 결혼을 한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결혼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 민담에서는 한 단계가 남아 있다. 여우의 소원대로 그를 죽여 머리와 발을 자르고 난 뒤 마법에서 회복된 공주의 오빠를 만난다. 여우의 마법을 풀어주는 단계이다. 변신한 동물이 인간화한 즉 또 다른 의식화를 경험한다. 이로서 대극의 합일이 이루어지고, 신성한 결합이 전체성을 획득하고 개성화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이 민담을 임상의 진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환자는 불편함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기회로 자신의 본능의 안내를 받아 무의식을 의식화 해 나가려는 사람은 막내 아들 같은 자발적인 동기가 필요하다. 원인론적 관점에 더해서 목적론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치료자는 개성화 과정의 안내자로서의 여우와 비유되는 역할을 한다. 일상 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지적으로 혹은 피상적으로 통

찰력을 얻은 것 같은 때가 있다. 자신이 알고 있다하면서도 실체는 똑같은 행동패턴으로 반복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환자는 여러 번의 충고에도 빈번하게 똑같이 자신에게 익숙한 태도를 취하고 또 그래서 민담의 주인공처럼 그때마다 한 왕국에 사로잡히는 것과 같다. 그때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도움을 주는 것이 치료자가 여우에게 배워야 하는 점이다. 그러나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궁극에는 내담자를 변화시키고 치료자 자신도 여우처럼 동물에서 인간이 되는 변환과 성장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 김덕희(2003) : 《세계 민담전집, 8. 프랑스 편》, 황금가지, 서울.
- 김성민(2009) : 몽골민담 '모래언덕 나라'와 C. G 융의 개성화 과정, 《심성연구》 24권 1호(39),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 그림형제, 김열규 역(2007) : 《그림형제 동화전집(합본)》 현대지성사, 경기도.
- 로버트 A. 존슨, 박종일 역(1910) : 《내면의 황금》 인간사랑, 경기.
- 로버트 A 존슨, 고희경 역(2006) : 《신화로 읽는 여성성 She》, 동연, 서울.
-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 심상영 역(2007) : 《융 심리학과 고양이》 한국 심층심리연구소, 서울.
- 박상학(2009) : “한국민담 ‘구복여행’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심성연구》, 24(2), 한국 분석심리학회, 서울.
- 생텍쥐페리, 최내경 역(2003) : 《어린 왕자》 베텔스만 코리아, 서울.
- 오경근, 김지향(2003) : 《세계 민담전집, 10. 폴란드, 유고 편》, 황금가지, 서울.
- 오토베츠, 배진아, 김혜진 역(2009) : 《숫자의 감춰진 비밀》, 푸른 영토, 경기도.
- 이도희(2006) : ‘여우누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심성연구》, 21권 1호(33), 한국분석 심리학회, 서울.
- 이부영(1997) : “분석심리학과 민담”, 《민담학 개론》 일조각, 서울.
- _____ (1998) :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 _____ (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 _____ (2011) : 《한국 민담의 심층 분석》, 집문당, 서울.
- 이유경(2008) : “신화의 형성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해명”, 《원형과 신화, 개정판》, 분석심리학 연구소, 서울.
- 임석재(2003) : 임석재 전집 6. 한국구전설화 충청남북도편, 평민사, 서울.
- 융 C.G., 이부영 외(1993) :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집문당, 서울,
- 융 C.G.(한국 융 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2002) : “민담에 나타난 정신현상에 관

- 하여”, 용 기본 저작 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서울.
- 용 C.G.(한국 용 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2006) : ‘어머니로 부터 해방되기 위한 투쟁’,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서울.
- 정인섭 지음, 최인학, 강제철 역편(2007) : 《한국의 설화》, 단국대학교 출판부, 서울.
-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정덕 옮김(2001) : 《그림으로 보는 황금가지》, 까치, 서울.
- 최연숙(2007) : 《민담, 상징, 무의식》 知 & 智, 영남대학교 출판부, 대구.
- 카를 케레니/장영란, 강훈 옮김(2002) : 그리스신화 1. 신들의 시대, 궁리, 서울.
- 크리스치안 슈트리히 엮음, 김재혁 옮김(2010) : 《세계의 동화》 현대문학, 서울.
- 한국문화 상징사전 편찬 위원회(1996) : 한국문화 상징사전 1. 두산동아, 서울.
- 한국문화 상징사전 편찬위원회(2000) : 한국문화 상징사전 2. 동아출판, 서울.
- 홍태한(2010) : 《한국 구전 설화집》, 민속원, 서울.
- Fraser Boa 저/박현순, 이창인 공역(2004) : 《용 학파의 꿈 해석》, 학지사, 서울.
- Cirlot JE, Jack Sage(1983) : *A Dictionary of Symbols*, 2nd Edition,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and Henley.
- Von Franz ML(1990) : *Individuation in Fairy Tale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 _____ (1995) : *Shadow and Evil in Fairly Tale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 _____ (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Shim-Sŏng Yŏn-Gu 2016, 31 : 2

〈ABSTRACT〉

An Interpretation of “Golden Bird”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Sang Hag Park, M.D., Ph.D.*

This thesis is an interpretation of “Golden bird” of Grimm's fairy tale and similar other tales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Golden bird story start loss of golden apple in king's garden. King and three sons are one-sided structure live without female members in family. They need feminine aspect. Adventure and journey of stupid youngest son can be seen as a individuation process in analytic psychology.

Ego meets several painful experience during journey. New Kingdom has a new specific collective consciousness. When ego fixed dominated specific collective consciousness he can only be liberated after completing the difficult task of the next phase in crisis of death. This process is initiation, which is a supplement to femininity after recovery of increased consciousness, marriage with the princess, which is possible to unify the sexes (coniunctio oppositorum).

The ego who got the apple, bird, horse, and princess which is shown to be a supplement to femininity, does not attain a complete success. Although the youngest comes out after brothers' failure, yet separation and abandonment of persona are difficult challenges and after all he achieves a higher consciousness and then he primarily marries the princess, his Anima, after he executed his brothers for his repeated hardships, when the intellectual capacity is sacrificed as offering.

Also, the fox restores himself from magic after the youngest son kills him and cut his head and feet, as the fox's wish. To be transformed into a human being. it experiences another consciousness. Finally, unifying the coniunctio oppositorum is fulfilled and a divine bond achieves the wholeness and it is accomplished individuation.

In clinical practice, fox is compared to a therapist as a guide of individuation

process who lead clients.

KEY WORDS : Grimm · Golden bird · Analytical psychology · Individuation ·
Fox.

**Jungian Analyst,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Korea*